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 간의 관계

구 현 영¹⁾ · 김 성 숙²⁾

1)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 서울미술고등학교 교사

Relationships among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in Adolescents

Koo, Hyun Young¹⁾ · Kim, Seong Sook²⁾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 Teacher, Seoul Art High School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in adolescents,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690 students from two middle schools and three high schools in Seoul.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a cybersex addiction index, a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a sexual attitude scale and a scale for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Of the adolescents, 93.3% reported not being addicted to cybersex, 5.7% reported being mildly addicted, 0.4% moderately addicted, and 0.6% severely addicted.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in adolescen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ybersex addiction of adolescents correlated with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Conclus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in adolescents were influenced by cybersex addiction. Therefore, nursing interventions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ybersex addiction need to be developed and provided to adolescents. In addition, varied programs for teaching sexuality to adolescents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Key words : Adolescents, Addiction, Gender, Attitude, Violence

주요어 : 청소년, 중독, 성, 태도, 폭력

투고일: 2007년 8월 22일 심사완료일: 2007년 10월 17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oo, Hyun Young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ung 4 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9 Fax: 82-53-621-4106 E-mail: hykoo@cu.ac.kr

서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변화를 통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단계로, 키와 몸무게가 빠르게 증가하고, 인지 능력이 발달하며, 내분비 및 생식 기관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이다(Wong, 1999). 청소년은 성적 성숙을 겪으면서 성에 관한 호기심과 충동이 증가하나, 이에 대한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갈등과 혼란을 겪는다(Cho, Jung, & Yu, 2000).

인터넷은 익명성과 편리성을 통해 현실 생활에서 금기시되는 성 관련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므로,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현실 탈출과 대체 가능성은 청소년이 성과 관련된 가상공간에 더욱 몰입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Carvalhoira & Gomes, 2003; Young, 1998).

인터넷에서 노골적이고 음란한 성 관련 내용, 즉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음란 게임, 음란 채팅, 음란 메일 등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사이버섹스라고 하고(Daneback, Cooper, & Mansson, 2005; Young, 2001), 사이버섹스 행위에 강박적으로 몰입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사이버섹스 중독이라고 한다(Young, 2001). 사이버섹스 중독은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이면서 원인으로 고려되는데(Young, 2001),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고, 무분별한 성관계 및 원조교제 등 사회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중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Kim, M.(2003)의 연구에서 고등학생과 대학교 1학년생의 5.7%가 사이버섹스에 중독된 상태였고, Nam과 Lee(2002)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의 7.6%가 사이버섹스 중독이었다. 특히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Kim, M., 2003; Cooper, Morahan-Martin, Mathy, & Maheu, 2002), Nam(2004)의 연구에서 남자 중·고등학생의 13.7%가 사이버섹스 중독 상태였다.

이러한 사이버섹스 행위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성태도와 가치관은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가족과 또래 및 대중매체로부터 전달받은 가치관과 관념 등이 상호 역동적으로 관련되어 형성되며(Kim, 2002), 성인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Cho et al., 2000). 따라서 최근 청소년의 중요한 외적 환경 요인인 사이버 음란물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사이버 음란물은 성에 대한 행위와 쾌락 중심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비하하는 경향이 높으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차별적이고 왜곡되게 표현한다(Kim, M.,

2003; Nam, 2004). 남녀평등의식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그 기초가 형성되어, 이후 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Kim, Lee, & Kim, 2002). 남녀평등의식은 남성과 여성의 능력 및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고, 성별에 따른 차별 행동을 수용하지 않으며, 성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인정하는 태도이다(Kim et al., 2002). 사이버섹스 중독은 평등의식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데,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이고, 전통적이었으며(Lee, 2004), 이성 친구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향이 높았고, 성적인 외모를 중요시했으며(Kim, D. S., 2004),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낮았다(Kang, 2004).

또한 사이버 음란물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고, 자극적이고 왜곡된 성을 묘사하므로, 청소년이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다(Lee, 2003). 성태도는 성에 대한 개인의 개념, 지각, 성향을 의미하는데, 선행 연구에서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많은 중·고등학생의 성태도가 더욱 허용적이었고, 성행동이 많았으며(Kim, M. H., 2003), 컴퓨터 음란물에 많이 접촉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녔다(Kim, D. S., 2004).

특히 사이버 음란물은 성행위를 가학적으로 표현하고, 성폭력을 범죄가 아닌 일상적인 남녀간의 성행위로 묘사하는 경향이 높다(Yun, 2003). 최근 사이버 음란물을 본 청소년이 사이버 성폭력이나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를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사이버 음란물의 몰입 수준이 실제 성행동과 관련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am & Lee, 2002). 사이버섹스 중독이 청소년의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Ju, 2003)에서 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음란물 접촉 경험이 높았고, 사이버섹스 중독 경향이 높았다. 또한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음란물 접촉 후 강간에 대한 상상을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 2003), 왜곡된 성표현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것이 강간 신화 등 그릇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사이버섹스 중독 예방과 조기 관리 및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성폭력 허용 정도 및 관련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이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Kim, D. S., 2004; Kim, M. H., 2003; Lee, 1998; Yun, 2003), 청소년의 성지식과 성태도는 가정환경, 학교생활, 친구관계 뿐 아니라 음란물 접촉 정도와 관련된다고 보고되었다(Kim, D. S., 2004). 또한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가치관과 태도 및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

년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 모형을 주장하였다(Lee, 1998).

그러나 사이버섹스 중독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성행동 및 성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가는 단계이다(Nam, 2004; Nam & Lee, 2002). 특히 인터넷 중독 현상이 최근에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사이버중독을 비롯한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이버섹스 중독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 및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 정도를 파악한다.
-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의 차이를 파악한다.
-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2개 중학교와 3개 고등학교(인문계 1곳, 실업계 1곳, 예술계열 특수목적 1곳)에 다니고,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는 중학교 2, 3학년생과 고등학교 1, 2학년생을 편의표집하였다. 상관 관계 연구에서 대상자 수를 문항수의 5~10배로 권장함(Lee & Lee, 2005)을 기초로 본 연구도구의 문항수가 71개임을 고려하여 탈락율을 감안한 740명을 목표인원으로 하였다.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원하지 않는 경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었고,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 응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누락되거나 응답이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한 690명(93.2%)을 최종 대상으로 하여 자료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

● 사이버섹스 중독

사이버섹스 중독은 Young(2001)의 Cybersex Addiction Index를 번안하여 간호학 교수 1인과 보건교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한 2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의 6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섹스 중독이 심함을 의미한다. Young(2001)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0~30점은 비중독, 31~49점은 경미한 중독, 50~79점은 중등도 중독, 80~100점은 심각한 중증 중독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 남녀평등의식

남녀평등의식은 Kim 등(2002)의 청소년용 남녀평등의식검사 축약형을 간호학 교수 1인과 보건교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가정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의식 5문항, 학교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의식 5문항, 직업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의식 5문항, 사회문화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의식 5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해 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성태도

성태도는 Lee(1998)의 성에 관한 태도 도구를 간호학 교수 1인과 보건교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허용성 6문항, 미래지향성 5문항, 또래압력 5문항, 부모가치 3문항으로 총 19문항이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윤리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허용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성폭력 허용

성폭력 허용은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2000)의 성폭력 허용 도구를 간호학 교수 1인과 보건교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언어적 성폭력 4문항, 물리적 성폭력 5문항, 정신적 성폭력 3문항으로 총 12문항이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허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이

었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은 기술통계 방법으로 제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은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한 후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남학생이 46.1%, 여학생이 53.9%였고, 중학교 2학년생이 24.5%, 중학교 3학년생이 17.5%, 고등학교 1학년생이 35.5%, 고등학교 2학년생이 22.5%였으며, 성적이 상위 30 백분위수 이내가 32.1%, 30~70 백분위수가 54.3%, 70 백분위수를 넘는 경우가 13.6%였다. 출생 순위는 첫째가 45.8%, 중간이 9.1%, 막내가 33.6%, 외동이가 11.5%였고, 가족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16.1%, 200~399만원이 51.3%, 400~599만원이 19.6%, 600만원 이상이 13.0%였다.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56.6%, 그렇지 않은 경우가 43.4%였고,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79.6%, 그렇지 않은 경우가 20.4%였다.

사이버 음란물에 접속하는 횟수는 없음이 41.0%, 드물고 불규칙적인 경우가 10.4%, 1~2회/월이 30.1%, 1~2회/주가 12.2%, 3~4회/주가 3.7%, 매일이 2.6%였고, 사이버 음란물에 접속하는 시간은 없음이 41.0%, 드물고 불규칙적인 경우가 5.9%, 30분 미만이 41.3%, 30분~1시간 미만이 8.1%, 1시간~2시간 미만이 2.5%, 2시간 이상이 1.2%였다.

대상자의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

대상자의 사이버섹스 중독은 평균 11.79점이었다. 남녀평등의식은 평균 3.23점이었고,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생활 3.30점, 학교생활 3.22점, 직장생활 3.27점, 사회문화생활 3.11점이었다. 성태도는 평균 3.07점이었으며, 허용성 3.06점, 미래지향성 2.86점, 또래압력 3.06점, 부모가치 3.46점이었다. 성폭력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690)

Variable	Category	n	%
Gender	Boy	318	46.1
	Girl	372	53.9
Grade	Middle school 2nd	169	24.5
	Middle school 3rd	121	17.5
	High school 1st	245	35.5
	High school 2nd	155	22.5
Academic achievement (percentile)+	Below 30th	220	32.1
	30th~70th	372	54.3
	Above 70	93	13.6
Birth order+	First	315	45.8
	Middle	63	9.1
	Last	231	33.6
	Only child	79	11.5
Family income (million won/month)+	Below 200	108	16.1
	200~399	344	51.3
	400~599	131	19.6
	Above 600	87	13.0
Serious conversation with parents+	Do	383	56.6
	Don't	294	43.4
Serious conversation with friends+	Do	547	79.6
	Don't	140	20.4
Contact times to cyber obscenities (times)	None	283	41.0
	Rarely	72	10.4
	1~2/months	208	30.1
	1~2/weeks	84	12.2
	3~4/weeks	25	3.7
	Everyday	18	2.6
Time spent to cyber obscenities (hours)	None	283	41.0
	Rarely	41	5.9
	Below .5	285	41.3
	.5~below 1	56	8.1
	1~below 2	17	2.5
	Above 2	8	1.2

+ Missing data excluded

<Table 2>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in subjects (N=690)

Variable	Min	Max	Mean	SD
Cybersex addiction	0	100	11.79	13.17
Gender egalitarianism	1.25	4.00	3.23	.48
Family life	1.00	4.00	3.30	.55
School life	1.00	4.00	3.22	.54
Occupation life	1.00	4.00	3.27	.61
Socio-cultural life	1.00	4.00	3.11	.53
Sexual attitude	1.16	4.00	3.07	.52
Permission	1.00	4.00	3.06	.66
Future-directed value	1.00	4.00	2.86	.65
Peer-pressure	1.00	4.00	3.06	.60
Parent's perception of sexual value	1.00	4.00	3.46	.57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1.00	4.00	1.30	.39
Verbal sexual violence	1.00	4.00	1.43	.48
Physical sexual violence	1.00	4.00	1.12	.40
Mental sexual violence	1.00	4.00	1.44	.60

허용은 평균 1.30점이었으며, 언어적 성폭력 1.43점, 물리적 성폭력 1.12점, 정신적 성폭력 1.44점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사이버섹스 중독을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비중독이 93.3%로 평균 9.58점이었고, 경미한 중독이 5.7%로 평균 36.23점, 중등도 중독이 .4%로 평균 60.33점, 심각한 중증 중독이 .6%로 평균 92.25점이었다<Table 3>.

<Table 3> Cybersex addiction of subjects (N=690)

Category	Score range	n(%)	Mean	SD
Not addicted	0 ~ 30	644(93.3)	9.58	9.54
Mildly addicted	31 ~ 49	39(5.7)	36.23	5.04
Moderately addicted	50 ~ 79	3(.4)	60.33	13.65
Severely addicted	80 ~ 100	4(.6)	92.25	9.3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은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사이버섹스 중독은 성별, 학년, 성적, 출생순위,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지 여부, 사이버 음란물 접속 횟수 및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사이버섹스 중독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p= .000), 고등학교 2학년생이 중학생보다 높았으며(p= .000), 성적이 70 백분위수를 넘는 경우에 30~70 백분위수인 경우보다 높았다(p= .043). 외동이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고(p= .002),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경우보다 높았으며(p= .000),

<Table 4>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of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690)

Variable	Category	Cybersex addiction (M±SD)	t or F (p)	Gender egalitarianism (M±SD)	t or F (p)
Gender	Boy	18.21±14.77	12.732 .000	2.98±.48 3.43±.37	13.640 .000
	Girl	6.30± 8.39			
Grade	Middle school 2nd	10.36±11.36	7.773 .000 a,b<d	3.14±.52 3.23±.53 3.28±.43 3.23±.46	3.025 .029 a<c
	Middle school 3rd	8.31± 9.15			
	High school 1st	12.17±14.91			
	High school 2nd	15.46±13.87			
Academic achievement (percentile)+	Below 30th	12.19±14.71	3.165 .043 b<c	3.26±.52 3.24±.45 3.09±.47	4.374 .013 a,b>c
	30th ~ 70th	10.89±12.08			
	Above 70	14.65±13.43			
Birth order+	First	11.80±13.16	4.953 .002 a,b,c<d	3.24±.49 3.38±.38 3.22±.47 3.05±.51	5.889 .001 a,b>d
	Middle	8.83±10.72			
	Last	10.98±11.90			
	Only child	16.61±17.08			
Family income (million won/month)+	Below 200	10.56±13.56	1.637 .179	3.32±.44 3.20±.50 3.17±.46 3.24±.48	2.403 .067
	200 ~ 399	11.29±11.88			
	400 ~ 599	12.20±12.41			
	Above 600	14.38±17.97			
Serious conversation with parents+	Do	12.04±13.07	.555 .579	3.24±.46 3.20±.51	1.153 .249
	Don't	11.47±13.33			
Serious conversation with friends+	Do	10.79±12.64	4.009 .000	3.25±.47 3.12±.51	3.004 .003
	Don't	15.74±14.47			
Contact times to cyber obscenities (times)	None	3.63± 5.94	112.127 .000 a<b<c <d,e<f	3.35±.45 3.31±.39 3.16±.47 3.00±.45 3.03±.68 2.92±.54	12.034 .000 a>c,d,f b>d
	Rarely	9.78±14.26			
	1 ~ 2/months	14.98±10.60			
	1 ~ 2/weeks	21.54± 8.57			
	3 ~ 4/weeks	27.56±11.57			
	Everyday	43.78±22.71			
Time spent to cyber obscenities (hours)	None	3.63± 5.94	84.870 .000 a<b,c <d,e<f	3.35±.45 3.32±.39 3.12±.49 3.19±.42 3.08±.57 2.57±.60	11.390 .000 a>c>f b,d>f
	Rarely	10.98±17.33			
	Below .5	16.22±11.12			
	.5 ~ below 1	21.89±12.12			
	1 ~ below 2	22.47±10.48			
	Above 2	53.13±31.28			

<Table 4>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of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690)

Variable	Category	Sexual attitude (M±SD)	t or F (p)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M±SD)	t or F (p)
Gender	Boy	2.89±.54	8.780 .000	1.39±.47	5.266 .000
	Girl	3.23±.44		1.23±.28	
Grade	Middle school 2nd	3.23±.47	18.308 .000 a,b>c>d	1.26±.29	2.412 .066
	Middle school 3rd	3.21±.49		1.25±.26	
	High school 1st	3.03±.51		1.33±.47	
	High school 2nd	2.86±.52		1.35±.41	
Academic achievement (percentile)+	Below 30th	3.07±.54	.402 .669	1.32±.41	2.353 .096
	30th~70th	3.09±.50		1.28±.35	
	Above 70	3.03±.55		1.37±.47	
Birth order+	First	3.07±.52	2.309 .075	1.31±.42	3.493 .015 b<d
	Middle	3.20±.44		1.23±.34	
	Last	3.07±.51		1.27±.30	
	Only child	2.97±.55		1.41±.49	
Family income (million won/month)+	Below 200	3.16±.55	4.707 .003 a,b>d	1.33±.51	2.373 .069
	200~399	3.09±.50		1.27±.28	
	400~599	3.08±.48		1.35±.45	
	Above 600	2.90±.56		1.35±.47	
Serious conversation with parents+	Do	3.09±.53	.557 .578	1.31±.39	.410 .678
	Don't	3.06±.51		1.30±.39	
Serious conversation with friends+	Do	3.08±.52	.990 .322	1.29±.36	1.733 .084
	Don't	3.04±.51		1.35±.42	
Contact times to cyber obscenities (times)	None	3.31±.43	38.072 .000 a>b,c >d,e,f	1.18±.24	22.022 .000 a<c,d,e<f b<f
	Rarely	3.10±.47		1.33±.45	
	1~2/months	2.99±.45		1.34±.31	
	1~2/weeks	2.75±.51		1.39±.47	
	3~4/weeks	2.61±.64		1.53±.59	
	Everyday	2.37±.52		1.97±.87	
Time spent to cyber obscenities (hours)	None	3.31±.43	29.359 .000 a>c,d,e,f b>d,f	1.18±.24	25.777 .000 a<c,d<f b,e<f
	Rarely	3.11±.46		1.38±.49	
	Below .5	2.94±.50		1.34±.37	
	.5~below 1	2.74±.51		1.48±.43	
	1~below 2	2.70±.56		1.33±.56	
	Above 2	2.44±.61		2.42±1.06	

사이버 음란물에 접속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고(p=.000), 접속 시간이 길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다(p=.000).

대상자의 남녀평등의식은 성별, 학년, 성적, 출생순위,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지 여부, 사이버 음란물 접속 횟수 및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녀평등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p=.000), 고등학교 1학년생이 중학교 1학년생보다 높았으며(p=.029), 성적이 70 백분위수 이내인 경우에 70 백분위수를 넘는 경우보다 높았다(p=.013). 출생순위가 첫째와 중간인 경우에 외동이인 경우보다 높았고(p=.001),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경우에 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았으며(p=.003), 사이버 음란물에 접속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고(p=.000), 접속 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다(p=.000).

대상자의 성태도는 성별, 학년, 가족 월수입, 사이버 음란물 접속 횟수 및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p=.000), 학년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p=.000), 가족 월수입이 399만원 이하인 경우에 60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높았다(p=.003). 사이버 음란물에 접속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고(p=.000), 접속 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다(p=.000).

대상자의 성폭력 허용은 성별, 출생 순위, 사이버 음란물 접속 횟수 및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폭력 허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p=.000), 외동이가 출생 순위 중간인 경우보다 높았으며(p=.015), 사이버 음란물에 접속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고(p=.000), 접속 시간이 길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다(p=.000).

<Table 5> Correlation among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of subjects (N=690)

Variable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Gender egalitarianism	-.303 (.000)		
Sexual attitude	-.449 (.000)	.249 (.000)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493 (.000)	-.242 (.000)	-.346 (.000)

대상자의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 간의 상관 관계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은 남녀평등의식과 약한 역상관 관계가 있었고($r = -.303, p = .000$), 성태도와 중등도의 역상관 관계가 있었으며($r = -.449, p = .000$), 성폭력 허용과 중등도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r = .493, p = .000$). 또한 남녀평등의식은 성태도와 약한 순상관 관계가 있었고($r = .249, p = .000$), 성폭력 허용과 약한 역상관 관계가 있었다($r = -.242, p = .000$). 성태도는 성폭력 허용과 약한 역상관 관계가 있었다($r = -.346, p = .000$)<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93.3%가 사이버섹스 비중독 상태였고, 6.7%가 중독 상태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7.6%가 중독이었던 Nam과 Lee(2002)의 결과 및 청소년의 5.7%가 중독이었던 Kim, M.(2003)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Chin(2005)의 연구에서는 14.7%가 사이버섹스 중독 상태여서, 나이가 많을수록 사이버섹스 중독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올바른 이용에 대해 교육하고 지도하며, 사이버섹스 중독의 예방 및 조기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은 평균 3.23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oo와 Kim(2007)의 연구에서 평균 3.16점이었던 결과와 비슷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은 가정생활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평등의식을 지녔는데, 이는 남녀가 집안일 하기, 부모/부부간의 권한 및 관계, 가족 내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사회문화생활 항목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대인관계, 성행동, 사회적 역할과 행동규범, 미디어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높은 항목이다. 따라서 대중매체가 성에 대한 의식과 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Kim, 2002)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의 성태도는 평균 3.07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Koo와 Kim(2007)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성태도 점수 3.23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성에 대해 비교적 윤리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특히 부모가치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부모가 자신의 성에 대해 매우 윤리적인 태도를 지녔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래지향성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 점수가 낮았는데, 선행 연구(Koo & Kim, 2007)와 일관된 결과이며, 현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Pott & Mandleco, 2002)과 관련된다.

청소년의 성폭력 허용은 평균 1.30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성폭력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허용은 성폭력 행위가 사회적으로 관용되거나 규제되는 정도에 관한 인지적 평가이다(Kim, S. H., 2004). 항목별 점수는 정신적 성폭력, 언어적 성폭력, 물리적 성폭력의 순이었는데, 성추행이나 강간 등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인 물리적인 성폭력을 가장 허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스토킹과 같이 정신적인 압력을 통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정신적 성폭력과 언어를 통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서는 물리적 성폭력보다 허용적이었다. 신체적 측면 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의 폭력도 그 위험과 고통이 큼을 생각할 때 성폭력 개념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성폭력 허용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들 변수는 모두 성별에 따라 달랐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폭력 허용이 높았고, 남녀평등의식과 성태도가 낮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섹스 중독 경향이 높아서 성별을 중요 변수로 고려했던 선행 연구(Cooper et al., 2002; Kim, M.,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태도가 허용적이고, 남녀평등의식이 낮았던 선행 연구(Kim, D. S., 2004; Kim, M. H., 2003; Kim et al., 2002; Koo & Kim, 2007)와 일치한다. 또한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S. H.(2004)의 연구에서 성폭력 허용 정도가 본 연구 결과보다 높았던 결과와도 일관된다. 최근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며, 성태도는 성행동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Kim, S. H., 2004; Lee, 1998),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하

게 된다.

학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사이버섹스 중독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인터넷과 사이버섹스에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더욱 몰입하면서 중독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Moon, Koo, & Park, 2005). 또한 성태도는 학년이 높을수록 허용적이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성적 욕구와 충동이 증가하고, 사이버섹스를 비롯한 성 관련 내용에 많이 접촉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남녀평등의식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 중학교 2학년생보다 높아서, 학년이 높을수록 평등의식이 높았던 Park과 Cho(2004)의 연구와 일관되며,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성역할과 평등에 대한 의식이 발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Kim et al., 2002). 성적이 70 백분위수 이내일 때 70 백분위수를 넘는 경우보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았던 결과도 인지 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이버섹스 중독은 성적이 70 백분위수를 넘는 경우에 30~70 백분위수인 경우보다 높았는데, 인터넷 및 사이버섹스 중독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게 된다(Plusquellec, 2000; Young, 2001).

출생 순위에 따라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폭력 허용에 차이가 있어서 외동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이버섹스 중독이 높았고, 남녀평등의식이 낮았으며, 성폭력 허용이 높았다. 인터넷 및 사이버 음란물 접속은 혼자 시간을 보내기 쉬운 방법으로 무료함을 느끼거나 외로울 때 많이 접속하는 경향이 있다(Young, 1998). 외동이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보다 가정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인터넷에 접속할 기회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인터넷 및 사이버섹스에 중독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선행 연구(Moon et al., 2005)에서도 혼자 여가를 보내는 경우에 인터넷을 과다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외동이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경우에 이러한 생각을 나눌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왜곡된 인식이 수정될 기회가 적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외동이의 남녀평등의식이 낮고, 성폭력 허용이 높았던 결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겠다. 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해 외동이 자녀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건전한 놀이에 참여하고 활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격려하는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형제자매 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 형성도 청소년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Wong, 1999), 본 연구에서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는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이 더 높았고, 남녀평등의식이 낮았다. 또래와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섹스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Lee, 2002), 친구 관계는 사이버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요인(Nam & Lee, 2002)이다. 또한 타인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편견과 선입관

이 줄어들고 의식이 발달하므로, 친구 관계는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과도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섹스 중독 예방 및 성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집단 활동을 통해 또래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가족 월수입에 따라 성태도에 차이가 있어서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 399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성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이었으며, 선행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상태는 중요한 환경 요인이므로, 반복 확대 연구를 통해 경제상태가 청소년의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겠다.

사이버 음란물 접속 횟수 및 시간에 따라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성폭력 허용이 유의하게 달랐는데, 접속 횟수 및 시간이 많을수록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폭력 허용이 높았고, 남녀평등의식과 성태도가 낮았다. Kim, M.(2003)과 Chin(2005)의 연구에서도 사이버섹스 중독은 사이버 음란물에 접속하는 횟수 및 시간이 증가할수록 높았는데, 사이버 공간에 깊이 몰입하는 중독자의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oo와 Kim(2007)의 연구에서 사이버 음란물에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현재 접속하는 경우에 성태도와 남녀평등의식이 낮아서, 본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음란물은 성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을 자극하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여, 건전한 성의식 형성을 방해하고,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성행동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성비행까지 일으킬 수 있다(Kang, 2004). Kim, S. H.(2004)도 사이버 음란물 접속 빈도와 기간이 많을수록 성폭력 허용 정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은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성폭력 허용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즉 사이버섹스 중독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낮았고, 성태도가 허용적이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성인기까지 이어지므로(Cho et al., 2000), 청소년이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특성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갖도록 도와야 한다.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을 예방하고 조기 관리하는 것은 남녀평등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사이버섹스 중독이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해 허용적이었다. 사이버 음란물은 대부분 선정적이고 비정상적인 내용으로 이용자의 시선을 끌고자 노력하며, 폭력적인 성충동을 표현하고, 성범죄를 모방할 위험을 증가시킨다(Kang, 2004; Yun, 2003).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Nam(2004)의 연구에서도 사이버섹스 중독은 의도적 신체 접촉, 강제적 키스나 포옹, 강제적 성관계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비행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청소년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부모를 격려하며, 음란 사이트 규제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성폭력 허용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고, 이들 변수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사이버섹스 중독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들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으며, 결과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섹스 중독이 심한 경우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하여 표집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들을 포함한 반복확대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관련되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Nam, 2004)에서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이 성충동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자기 통제력이 약한 청소년에게 성비행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자기 통제력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이 청소년의 성폭력 허용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이버섹스 중독은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성폭력 허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을 감소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사이버섹스 중독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 및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서울에 소재한 2개의 중학교에 다니는 2, 3학년생과 3개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1, 2학년생 69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성폭력 허용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사이버섹스 중독은 평균 11.79점으로 비중독이 93.3%, 경미한 중독이 5.7%, 중등도 중독이 .4%, 심각한 중등도 중독이 .6%이었다. 남녀평등의식은 평균 3.23점이었고, 성태도는 평균 3.07점이었으며, 성폭력허용은 평균 1.30점이었다.

대상자의 사이버섹스 중독은 성별, 학년, 성적, 출생순위,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지 여부, 사이버 음란물 접속 횟수 및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녀평등의식은 성별, 학년, 성적, 출생순위,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지 여부, 사이버 음란물 접속 횟수 및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태도는 성별, 학년, 가족 월수입, 사이버 음란물 접속 횟수 및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폭력 허용은 성별, 출생 순위, 사이버 음란물 접속 횟수 및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사이버섹스 중독은 남녀평등의식과 약한 역상관 관계가 있었고, 성태도와 중등도의 역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성폭력 허용과 중등도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은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성폭력 허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섹스 중독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 관련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References

- Carvalho, A., & Gomes, F. A. (2003). Cybersex in Portuguese chatrooms: A study of sexual behaviors related to online sex. *J Sex Marital Ther*, 29(5), 345-360.
- Chin, Y. Y. (2005). *Factors influencing cybersexual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Cho, B. H., Jung, O. B., & Yu, G. H. (2000). *Human development*. Seoul: Kyomoon.
- Cooper, A., Morahan-Martin, J., Mathy R. M., & Maheu, M. (2002). Toward an increased understanding of user demographics in online sexual activities. *J Sex Marital Ther*, 28(2), 105-129.
- Daneback, K., Cooper, A., & Mansson, S. A. (2005). An internet study of cybersex participants. *Arch Sex Behav*, 34(3), 321-328.
- Ju, S. J. (2003). *A study on effects of cybersex addiction on juvenile sexual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Kang, E. M. (2004). *The difference of sexual knowledge, consciousness and behavior by experience of sexually obscene pictures on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ch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 Kim, D. S. (2004). *The influences of contacting computer obscene pictures on sex-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of prim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Kim, M. (2003). A study on the reality of internet addiction and cyber-sexual addiction among adolescents. *J Adolescent Welfare*, 5(1), 53-83.

- Kim, M. H. (2003). *The study on sex-attitudes and sex-behaviors of adolescents based on contacting internet obscen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 Kim, S. H. (2004).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sexual violence related to cyber pornography exposure of high school mal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 Kim, S. T. (2002). *A study on the youth's contact realities with obscene things by interne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Kim, Y. H., Lee, S. Y., & Kim, H. Y. (2002). *2002 Report: The development of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Adolescent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oo, H. Y., & Kim, S. S. (2007).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s and gender egalitarianism in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level of internet addictio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3(2), 157-165.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2000). *The effect of the sex commercialization on the sex consciousness and the sexual violence*.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Lee, H. B. (2004). *Study on the influence of teenagers' internet use on their sexual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 Lee, H. G. (2002). Comparison of social and psychological predicting variables in the obscene and obscene chatting addiction. *Korean J Youth Stud*, 9(2), 165-190.
- Lee, J. E. (1998). *The relationships of self-image, sexual attitude, impulsivity and sexual behavior in 7th and 10th grad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M. H. (2003). *Sexual attitude and knowledge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addicted youth to obscene materi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nyang University, Anyang.
- Lee, S. M., & Lee, E. O. (2005). *Nursing research*. Seou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 Moon, Y. I., Koo, H. Y., & Park, H. R. (2005). Scope of internet addiction and predictors of addiction in Korean children in early elementary school.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1(3), 263-272.
- Nam, Y. O. (2004). A study on the psychosocial variables of the cybersexual addiction and sexual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Korean J Youth Stud*, 11(4), 167-192.
- Nam, Y. O., & Lee, S. J. (2002).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cyber-sex addiction, exposure to cyber obscenities and cyber sexual activities. *Korean J Youth Stud*, 9(3), 185-212.
- Park, Y. B., & Cho, K. J. (2004). A study on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personality traits in students in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4), 442-450.
- Pott, N. L., & Mandleco, B. L. (2002). *Pediatric nursing: caring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NY: Delmar.
- Plusquellec, M. (2000). Are virtual worlds a threat to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rch Pediatr*, 7(2), 209-210.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Young, K. S. (2001). *Tangled in the web: Understanding cybersex from fantasy to addiction*. IN: 1st Books Library.
- Yun, K. S. (2003). *The study on influences of internet obscenities upon adolescents' sex-related valu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on University, Daejon.
- Wong, D. L. (1999). *Whaley & Wong's Nursing care of infants and children*. 6th ed. St. Louis: Mosby.